

2021 기업윤리 브리프스 <4월>

(주제: ESG 가치와 ESG 혁신)

COVER STORY

우리 사회가 코로나 사태와 직면하면서 ESG경영이 기업경영과 투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ESG경영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보다 한차원 더 확장되고 구체화된 개념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 ESG경영 추세와 동향을 살펴봄에 기업의 활동이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떤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코칭

ESG 투자와 ESG 경영



유 태 영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

Q1.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관심은 최근 ESG 평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ESG 투자나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책임 투자는 기업활동이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ESG 경영은 표현 그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 책임 투자는 ESG 경영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활동과 연관되며 인간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고려하면 ESG 경영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확장하여 구체화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ESG 투자나 ESG 경영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환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성과와 사회적 책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야 하며,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지배구조는 앞으로의 기업경영에서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Q2.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문제의식도 ESG 가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전략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성과측면에서 살펴보면, 2021년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ESG 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고,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도 국가별 ESG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같은 공공부문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측면에서 보다 동태적인(dynamic) 요소가 고려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할 때 결과 수치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ESG 평가는 향후 기업의 생존과 성과를 예측하는데 괴리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의 ESG 경영에서는 기업의 목적 가치와 행위 수단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또 다른 기업은 지역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할 때, 이들의 ESG 경영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ESG 경영은 기업의 목적과 행위의 원리가 다양한 양식(varieties of firms)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3. 최근 '무디스'가 발간한 글로벌 ESG 등급 평가에서 한국이 전 세계 144개 국가 중에서 11개 국가만 선정된 1등급에 오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ESG가 기업분석을 넘어 국가 신용 평가에 주요한 요소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디스의 글로벌 ESG 평가보고서는 ESG 경영이 기업 신용분석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고, 나아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원 배분과 전략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면 기업과 정부가 자원배분을 결정할 때,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ESG 평가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요소는 평가사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기에 평가받는 기업과 국가의 사회적 가치와 상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평가사의 평가요소는 글로벌 확실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는 ESG 평가에 있어 다양성과 확실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들보기

ESG 가치와 지속가능성

- 투자원칙과 경영전략, 그리고 국가평가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책임투자의 목적은 재무적 리스크와 함께 비재무적 리스크까지 관리해 지속가능한 투자 성과를 창출하고 장기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기업이 복수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1경 가까운 8조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CEO 래리 핑크는 팬데믹 시대에 더욱 분명한 ESG 투자원칙인 ESG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인수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SG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라도 미래가치는 하락하고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ESG는 기업의 혁신경영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고, 마침내 국가평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ESG 투자원칙과 금융시장의 패권

국부펀드(SWF)는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가자산을 증대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부펀드는 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초대형 기관 투자자(유니버설 오너)로서 운용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금융시장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 근간을 탄탄하게 만드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유니버설 오너로서 공격 연기금의 활발한 ESG 투자가 기업의 ESG 경영환경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이들 기업이 성과를 내면 국내외 ESG 펀드의 투자 증대가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책임투자로 기금운용방식을 바꾸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약17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있다.

GPIF는 연기금 운용을 통해 일본 주식시장의 7%와 세계 주식시장의 1%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GPIF는 ESG 투자원칙 아래 'ESG 지수', '젠더 지수'(성평등 친화 기업투자), '저탄소 지수' 등의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여 수직조 엔의 자금을 ESG 실천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GPIF는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갖춘 기업들에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 GPIF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자산 운용 원칙을 실천하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의 그린딜 전략에 발맞춰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천명하는 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ESG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자산운용사 블랙록 ESG 투자 헤드인 브라이언 디즈를 지명했다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ESG가 핵심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실제, 블랙록은 석탄 사용으로 얻은 매출이 25%를 넘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처분했다.

국내에서도 롯데지주를 시작으로 포스코, 현대, LG, SK 등 대기업 계열사는 녹색채권 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ESG 투자가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환경 관련 녹색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세계적 흐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자원공사·코레일·중부발전 등 공공기관들도 앞다투어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 발행으로 ESG 투자를 이끌고 있다.

ESG 경영전략과 기업의 생존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이미지 제고를 높이는 데 활용되었다면, ESG 경영전략은 ESG 가치를 기업의 PR·마케팅 전략 차원이 아니라 투자 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포스코가 ESG 경영 차원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키로 했다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환경 캠페인이지만 ESG 경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2019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약 11%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시에 2G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최고경영진의 ESG 인식 부족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ESG 전성시대에 기업의 잘못된 판단은 일시적인 수익 하락에 그치지 않고 존폐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ESG 가치는 더 이상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선택 요건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 됐다. 세계최대 정유사 엑슨모빌이 1928년 편입된 다우존스지수에서 92년 만에 퇴출당한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엑슨모빌은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이슈에 눈감고 탄소에너지 개발과 기술 투자에 집중했다. 투자자의 탄소감축 경영전략요구를 묵살한 엑슨 모빌은 기록적인 주가폭락과 다우존스지수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 행동주의 투자사 엔진버원은 엑슨모빌 이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이사 4명의 선임을 요구해서 2명의 교체를 이끌어냈다. 이는 ESG를 매개로 한 금융과 실물의 뉴딜적 변화의 결과물인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석탄 사용에서 얻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에게 립서비스가 아닌 숫자를 요구한다. 탄소효율을 높이고 있는지는 탄소집약도 숫자, 산업재해 및 작업장 안전은 산업재해율, 나아가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의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기준과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개(TCFD) 기준 성과가 그러한 숫자들이다.

ESG 가치와 국가평가

1월 18일(현지시간)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처음으로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은 ESG 수준이 높아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ESG 지표가 단지 투자를 분석하거나 기업경영을 판단하는 지수를 넘어,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ESG 가치는 기업 차원의 지속가능 경영전략구상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데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전환의 핵심적인 실행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등장한 ESG 가치는 기업경영전략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경제혁신의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대한 리셋(Great Reset)' 과정에서 무늬만 ESG, 그린워싱(친환경경영분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ESG 가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ESG 1등급 국가로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가정책이 기업을 견인할 때, ESG 가치가 경제적 선순환을 이루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리뷰

ESG 혁신과 자본주의 전환

○ 리베카 헨더슨(2021), 『자본주의 대전환. 하버드 ESG 경영수업』 (어크로스)

하버드대 특별교수 리베카 헨더슨은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한 '자본주의 다시 상상하기'를 바탕으로 쓴 『자본주의 대전환』(Reimagining Capitalism in a World on Fire)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극심한 불평등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자본주의를 지속가능 자본주의로 바꾸는 길을 모색한다. 저자는 1장에서 "주주 가치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사회와 지구뿐 아니라, 기업의 건강에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주주자본주의의 시효만료를 주장한다.

기업이 공익을 희생하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자유시장이 통제받지 않는 상황은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이 유해 쓰레기를 강에 버리고, 정치과정을 통제하고, 가격 담합을 밀어붙인다면, 자유시장은 부의 총액은 물론 개인의 자유도 확대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기업 그 자체가 의지하고 있는 제도를 파괴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주주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대전환의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공유가치창출과 목적 지향 기업

첫 번째는 '주주우선주의'에서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공유가치창출'을 기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폐기물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혁신하여 예상치 못한 수익과 사회적 명성을 획득한 노르스크엔빈닝(Norsk Gjenvinning)사¹⁾가 그 사례이다. 하지만 공유가치창출만으로는 자본주의 대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그 목적을 구성원 모두가 자각하고,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는 '목적 지향 기업'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 지향 기업은 세상에 대단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노르스크엔빈닝사는 경쟁사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높은 수익을 확보해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환경 친화는 빠르게 산업 전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공유가치창출을 목표로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채택하거나 경제체제를 바꾸려는 과감한 결정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불확실성에 맞서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변화를 정당화하고 자본주의의 전환을 시작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 노르웨이 최대 폐기물처리업체 "노르스크엔빈닝(Norsk Gjenvinnig)"사는 2012년 에리크 오스문센이 CEO에 취임한 이후 단순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세계 최고의 산업재활용 원자재 판매업체로 변화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노르웨이 폐기물의 25%를 수거하여 그중 85%를 에너지화하거나 산업원자재로 가공하여 생산하고 있다.

ESG 투자원칙과 ESG 경영전략

세 번째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표들을 넣어 재무 재설계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대전환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은 수익 극대화에 기울어진 재무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공유가치창출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의 비용과 편익을 보여주는 측정기준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고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계량화된 재무제표에 가려지거나 재무회계에서 은폐된 가치들을 가시화하고 평가해야만 한다. 저자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지표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응답이며, 이미 투자자의 행동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8년 관리되고 있는 총금융자산의 20%에 육박하는 19조 달러 이상이 ESG 기반 정보를 통해 투자되었다.

현대의 재무제표가 성과와 연계된 표준 감사 기준을 토대로 기업을 비교가능하게 만들어 주지만, ESG 지표를 기준으로 한 기업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 재무제표에만 의지한다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하청업자의 인권을 짓밟는지, 건강한 기업문화를 가졌는지 등의 정보를 놓칠 수 있다.

1999년 글로벌 환경단체연합인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표준화하기 위한 조직인 글로벌 리포팅 구상(GRI)을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만들었다. 2019년 기준 세계 250대 기업의 80% 이상이 GRI 기준을 이용해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고했고, GRI 데이터베이스에는 3만 2천 건 이상의 보고서가 저장돼 있다. 하지만, 자료의 주요 목적이 NGO와 정부가 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투자자 중 ESG 지표 개선이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투자자 친화적인 측정지표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는 모든 회사의 유용한 ESG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한발 더 나아갔다. 투자자들은 SASB 지표를 통해 ESG와 재무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기업들은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고안된 전략적 가치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시장에서 ESG 지표는 투자원칙을 재정립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기업에게 ESG 가치는 재무구조를 재설계하는 경영전략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ESG 투자원칙과 ESG 경영전략은 재무 설계의 기준을 넘어 혁신의 원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율규제에서 시장과 국가의 균형으로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는 하나의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 네 번째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이 시장을 지배할 수 없게 자율규제라는 기업의 협력역량을 증대해야 한다. 기업협력은 지속적인 협력에 모두가 공감하고 편익과 비용이 분명할 때만 가능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 공통의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실천방안을 만들어내려는 자율규제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기업이 경쟁 기업이나 시민사회, 나아가 정부와 파트너십을 결성하는 것만으로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취약한 협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율규제는 제도적 규제나 정부 개입 없이는 위태롭거나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제도와 시장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기후위기에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수익과 포용적인 제도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거나 목적 지향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민주 정부의 책무라면, 기업 또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목적 지향적 기업이라면 성소수자차별법안에 맞선 애플과 월마트의 저항에 합류하거나 파리후협약에서 탈퇴한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는 기업연합체에 목소리를 보탬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파타고니아의 투표 캠페인이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지키고 강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익추구와 정의실현이라는 공유된 의식의 결합으로 자본주의의 진정한 기반인 공유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러한 가치를 목적 지향적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속으로 통합할 때만이 자본주의의 대전환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경영 가이드

윤리경영 실천시스템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업에 비윤리적인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윤리규범 실천을 위해 기업 내의 윤리경영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Q.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어떤 종류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지요?
 윤리담당 조직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구성해야 하는데, 보통 기업의 윤리적 사안에 있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위원회, 일상적인 윤리업무를 수행하는 윤리경영 사무국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 그리고 윤리담당 책임자로 구성됩니다. 또한, 윤리경영 담당 조직 구성 외에도 내부고발 보호제도 및 윤리경영 실천 내부제도 등을 마련합니다.

(1)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의 종류와 역할

1) 종류

구분	종류
윤리경영 실천시스템	· 윤리경영 위원회 · 윤리경영 사무국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 · 윤리담당 책임자
윤리경영 실천 내부제도	· 내부고발 보호제도 · 윤리경영 실천 내부제도

2) 역할

□ 윤리경영 위원회

윤리경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최고경영자의 주도 하에 설정된 윤리규범을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경영 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의 윤리경영 조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윤리경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구성	역할 및 책임
윤리경영 위원회	이사회/경영진	· 윤리경영 정책의 결정, 지휘·감독 · 윤리경영 및 평가기준 의결 · 임직원에 대한 보상·징계 결정 · 윤리경영시스템 지휘·감독 · 윤리경영 관련 제안내용 의결

□ 윤리경영 사무국

윤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윤리경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윤리경영 사무국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를 설치합니다. 해당 조직의 구성원은 윤리경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규정을 지켜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는 모든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원 개인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윤리경영 사무국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구성	역할 및 책임
윤리경영 사무국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	이사/윤리경영 관련 부장	· 윤리규범 제정·보완 ·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작성·관리 · 임직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준칙의 이행 여부 감독 · 윤리문제에 관한 유권해석 · 윤리감사 실시 · 비윤리 행위 적발 시 재발방지 조치 · 윤리경영 실천 및 홍보

□ 윤리담당 책임자

기업의 윤리부서를 책임지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윤리담당 책임자를 세워야 합니다. 윤리담당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윤리관련 정보수집, 사내의 윤리관련 소통, 임직원 교육,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윤리담당 책임자에게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사내에서 신뢰 받는 사람으로,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
-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에서 임명
- 투철한 직업의식, 투명한 업무 수행 능력
-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소유

윤리담당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구성	역할 및 책임
윤리담당 책임자	사업장의 부서장(팀장), 현장소장 또는 윤리담당관	· 각 부서(팀), 현장의 윤리 실천사항 점검 · 각 부서(팀), 현장직원의 교육 · 각 부서(팀), 현장직원의 윤리적 딜레마 상담

(2) 윤리경영 실천 내부제도

□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제도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장치 구축
 - 내부고발자의 입증책임 및 처벌 면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부고발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의무규정을 두되, 권장하는 형식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내부고발 신고 채널 마련
- 내부고발 신고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 윤리경영 실천 내부제도의 개선장치

- 윤리조직의 기반조성
- 노사관계, 정보공시 제도 등의 개선
- 윤리적 평가제도 및 포상제도 확립
- 회사 영업비밀 관리제도 확립
-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정보보안 장치 마련
- 환경친화적 실천제도 수립·개선
- 사회적책임 및 사회공헌제도 확립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윤리의 실천기구로서 윤리경영 위원회를 기업 내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경영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윤리경영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의 '고객'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정보통신부·IT벤처기업연합회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전경련)
- 윤리경영 콘서트
- 글로벌 시대의 윤리경영론

- 윤리경영위원회 구성 사례(한국지역정보개발원)
<http://www.klid.or.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conduct>
- 윤리실천사무국 사례(대성)
http://ethics.daesung.co.kr:8080/system/system_1.jsp

<참고: 월별 윤리경영 가이드 진행 프로세스>

윤리경영 가이드	
① 윤리경영 이해와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의 이해(2월호) ▪ 윤리규범 세우기(3월호) ▪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4월호)
②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 종업원 ▪ 주주 및 투자자 ▪ 협력회사
③ 윤리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의무교육 안내 ▪ 청탁금지법
④ 내부고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제도 구축 및 운영
⑤ 윤리경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 모범사례/위반사례
⑥ 윤리경영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 수준 진단

국내 동향

1. 개인정보 침해 기업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윤종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침해 기업 과징금 상향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동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현행법의 '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은 사고를 낸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과징금 상한으로 잡고 있다.

* 참고: 한국경제, 2021.03.16.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3160393Y>

2.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통한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9억 5천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A사 14억 300만 원, B사 12억 2천 900만 원, C사 2억 7천 300만 원, D사 4천 800만 원이다.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맨홀 입찰에서 이들 4개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를 합의 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관급 입찰시장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 과정에서 민간 입찰시장의 담합까지 발견해 일괄 제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참고: 매일경제, 2021.03.08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sCode=21&t_uid=21&c_uid=3401746

해외 동향

1. 미 증권거래위원회, ESG 펀드 운영 점검 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가 설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금융서비스 업체(모닝스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강화되고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면서 ESG 펀드에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511억 달러(약 57조3천597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이미 2019년에 추천 종목 리스트 등 ESG 펀드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면서 올해 조사는 한층 더 조직적인 방식으로 ESG 펀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참고: 연합뉴스, 2021.03.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055500009?section=international/all>

2. WHO,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 반대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서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 움직임에 대해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른바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을 증명하면 감염 우려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일부 선진국 위주로 이뤄지며 아직 시작조차 못 한 국가도 많다는 점과, 백신을 접종한 뒤 증상이 없더라도 바이러스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참고: 동아일보, 2021.0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0&aid=0003343233>

행사소식

Boao Forum for Asia 2021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이 4월 개최된다. 주제는 '전세계 대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이며 중국 하이난 도시 보아오에서 오프라인 회의 위주로 진행된다.

주최 : 보아오포럼

일시 : 2021년 4월 18일 ~ 21일

장소 : 중국 하이난 보아오

RI Japan 2021

RI(Responsible Investor) 컨퍼런스는 5일 동안 ESG 및 지속가능 금융 이벤트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 선도적 리더, 실무자들이 참석하며 디지털 방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최 : responsible investor nippon

일시 : 2021년 5월 17일 ~ 21일

장소 : 온라인(디지털 방송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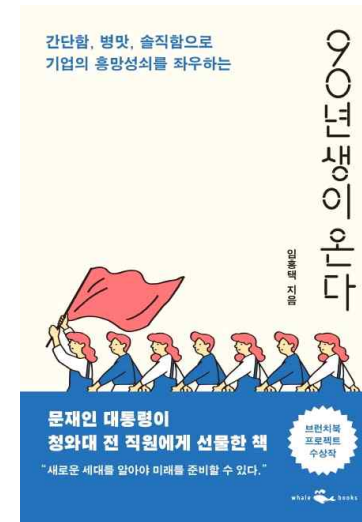
등록 : [20210218-RI-Japan-2021-draft-agenda-EN.pdf \(mcusercontent.com\)](https://www.mcusercontent.com/20210218-RI-Japan-2021-draft-agenda-EN.pdf)

문화 속 기업윤리

세대의 공존, 공감에 필요한 조직

- 도서, 「90년생이 온다」

어느 시대에나 세대갈등은 있어왔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재의 사회구조 속에서 그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책 「90년생이 온다」는 조직 구성원으로 새롭게 등장한 90년생의 특성을 짚어보며 조직 내 세대 융합과 조직문화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90년생의 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용 시장은 전체 노동자의 46%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90년생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는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안정성'에 둔다. 그리고 동시에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낼 돌파구로 '재미와 자기만족'을 삶의 가치로 추구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데 거침없고, 자기표현에 있어 그 어느 세대보다 솔직한 이들은 조직과 사회에도 그런 솔직함과 정직함을 요구한다. 채용비리, 부정부패, 기업 비윤리 행위 등의 불합리를 묵인하려 하지 않고, 그 어느 세대보다 사회 정의와 공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솔직하고 당당한 이들의 특성은 때때로 기성세대들에게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젊은세대는 그런 기성세대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 한다는 편견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렇듯, 세대갈등은 세대별 시대상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차이가 아닌 잘못된 점으로 인식하는 데서 발생한다.

너무나도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세대가 조직 내에서 조화롭게 융합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먼저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조직원에게 혁신과 창의성을 요구하려면 조직 역시 기존의 틀에 갇힌 보수적인 조직문화에서 탈피하여 그것을 수용하려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젊은세대와 기성세대로 대비되는 조직 구성원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는 지금의 젊은세대가 겪고 있는 불합리의 문제가 비단 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인식해야 하며,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 역시 사회적 부침을 겪으며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구분 짓는 '세대'는 살아온 시간과 배경이 천차만별인 개개인이 모여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모여 우리가 몸담은 조직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선부르게 단정 짓기 전에 그 특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성취, 조직의 성장,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 세대를 막론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우리는 그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윤리 한 스펀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상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적 이해관계나 개인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는 피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 이익추구는 근절해야 합니다.**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공적인 가치입니다.



공감+

공감+

최소량의 법칙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는 오랜 연구 끝에 식물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성장을 좌우하는 영양소는 '식물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이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다.

“ 길이가 제각각인 나뭇조각을 모아 만든 물통에 물을 담을 때, 물의 높이는 가장 짧은 나뭇조각에 의해 좌우된다. 물은 결국 가장 짧은 나뭇조각을 기준으로 넘쳐버리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행위가 조직 전체의 윤리경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윤리문자

윤리메시지

직급, 지위, 권한을 이용한 비하 발언, 부당행위 강요는 NO!

“ **타인에 대한 존중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

독자 퀴즈

Q.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하는 비재무적 요소를 뜻하는 용어는?

- ① ESG
- ② 거버넌스
- ③ CSR
- ④ CSV

- ◆ **지난 호 정답:** ②
-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 ◆ **지난호 정답자는** 정현호님, 손예슬님, 노계환님, 강대산님, 김미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